

우리 모임에선

불교산악인련 1돌 법회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장 손현수)은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 주관으로 14일 12시 광주 무각사에서 창립1주년 기념법회 및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불하기 행사' 결의대회를 갖는다.

백련장학회 구치소 위문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위안법회 및 불자연예인공연이 5월29일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 주최로 구치소경내에서 열렸다.

이날 위문법회 및 공연에는 이근찬씨(불교방송)의 사회로 불자 가수 송춘희, 금사향, 은방현, 남광수, 김활선, 오은주씨, 무용가 이소자씨등 12명의 연예인이 출연했다.

우리는선우 정기수련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5월 23,24일 장성 백양사와 남원 실상사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불 정기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대회에서는 토진님으로부터 참선강의와 실수, 금강스님의 참사탑결사, 도법스님의 '이 시대 귀농의 의미' 강의를 듣고, 화원간 '마음나눔의 장'으로 진행됐다.

성북구청 범문회 성지순례

성북구청 범문회(회장 정후시)는 5월 16,17일 3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충북 보은 법주사와 북한암으로 무박2일 성지순례 결 정진법회를 다녀왔다.

법문회는 이번 정진법회에서 IMF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도와 정진을 했다.

법문회 정후시회장은 "정진법회에서 탄진번뇌를 버릴때 부처님이 자리할 공간이 생긴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왔다"고 말했다. (영예기자=장인식)

PC통신 불교동호회 소모임활동 '전성시대'



하이텔불교동호회 강원모임은 5월16일 낙산사 등 강원도 일대에서 사회망 철야 용맹정진 및 불교문화순례법회를 개최했다.

컴퓨터통신 불교동아리에 지역, 봉사, 취미, 띠모임등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넷츠고 가 다양한 소모임 중심으로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불 정기수련회를 개최했다.

투지 되살려 실적아름 극복

김홍국 서울역서 '홀리스축구단' 창립



실적자들을 위한 홀리스축구단이 조직돼 화제가 되고 있다.

불자 가수 김홍국씨(사진)가 조직해 5월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창단식을 가진 홀리스축구단은 실적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김홍국씨는 "실의에 빠져 역안을 배회하는 실적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축구단을 조직하게 됐다"며 "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경기를 통해 실적의 아픔을 극복하며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창단식에서 이들 홀리스 축구회원들에게 운동복과 축구화 등을 나눠주며 이들을 격려했다. 실적자 축구단은 코메디언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사랑의 전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지역·봉사·취미·띠별 친목 다지며 자기개발

원 광주 울산 경남 전주 등 지역모임과 한달에 2~3회 만나 전통차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명동계', 보살정신과 사법법 6바라미를 실천하는 '취모리' 모임이 활동중이다.

또 거동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철원회'와 불교예술인들이 서로의 힘을 응집하여 전시회를 열고 있는 불교예술인 모임방 등이 있다. 특히 세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세대 광장'과 25세부터 39세까지 활동하는 '햇빛좋은 창'이 개설돼 있다.

'오손도손' 코너에 9개의 소모임을 운영중인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업)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임 '보은회', 영화 등산 당구 등의 취미활동하는 '보람찬 생활방'과

전라지역 모임인 '백재인의 쉼터', 대전·충북·충남모임, 대구·경북모임, 서울·경기모임, 부산·경남모임 등이 있다. 띠모임방 '12간지'의 경우 '조다쉬(말)', '되새김(소)', '니아옹(호랑이)', '양들의 침묵(양)', '꿀꿀이(돼지)' 등 띠별 활동으로 친구도 쉽게 만나는 장점이 있다.

나우누리 부처님마을(회장 박춘동)은 '이런 모임 어때요'라는 소모임방을 운영하여 반개모임 등을 갖고 있다. 넷츠고 불교동호회(회장 권상목)도 전통차를 좋아하는 회원들의 모임인 '지대방'과 '글마음' '담사모임', '어린이 청소년지도교사모임' 방이 개설돼 있다.

유니텔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송암동산 봉사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모임방 개설을 준비중이다.

6월1일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 인터넷 전문채널 채널 불교동호회 준비위(현대불교신문 부대표)도 회원모집과 함께 지역모임과 취미모임 등의 소모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실직자 쉼터 '아침을 여는 집' 개원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은 5월25일 오전 '아침을 여는 집'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경복련 '자비의 집' 회장 동광(도선사 주지), 경복련 부회장 종후(노적사 주지)스님과 김모임 보국복지부장관, 김운환 경실련 공동회장, 김동일 중구청장, 유용성 경실련 사무총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을 비롯 실적자 6백여명이 참석했다.



불자예술인연합 대법회 봉행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회장 이상웅)는 5월28일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연합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암도스님을 비롯 수곡사주지 자용스님, 남장사주지 성웅스님, 금하선원주지 청암스님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웅회장은 "예술인 불자의 사명감으로 불교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만해사상선양회 대경지부 설립

만해사상선양회 대구 경북지부(지부장 이영창, 대구벤처기술투자연구소장)가 5월23일 대구진각회관에서 화산스님 명호근회장 경희대 김재홍교수 이상반 현대대총회장 서지원 시인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는 성덕스님(동화사주지) 유상총회장(대구신행단체연합) 김성규교수(영남대 외대)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귀농운동과 불교의 역할' 워크숍

조계종 농촌살리기위원회, 실상사, 전국귀농운동본부, 우리는선우, 불교환경교육원은 22일 오후 '귀농운동과 불교의 역할' 주제의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조계종 사회부장 승관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불교귀농학교장 도법스님,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이 각각 주제 발표했다.

만남

"참회 정진 '연꽃향기' 전해요"

1992년 창립...불교의식·차문화 보급 자원봉사·여성불교대학 내달 개설

참회와 정진하는 생활을 모임의 가장 중요목표로 삼고 있는 육법공양회(회장 정승연)는 5월 오전 용인 관음사에서 보현행원품 독경과 1백8배 참회법회를 갖고 오후에는 다례원에서 다도수련회를 갖는다. 부처님 말씀과 전통예절을 배워 하심과 불자덕목을 갖춰야만 이룩과 사회로 연꽃향기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또 6월경에는 총무원 1층

에 여성불교대학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92년 10월 구룡사 만불전에서 열린 우리는 선우 창립1주년 기념식에서 육법공양회를 재현하여 발표하면서 육법공양회는 발족했다. 육법공양회는 교계의 중요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참가. 도량과 불단을 장엄하며 부처님에게 여섯 가지 공양을 올리고 있다. 또 3개월에 한번씩 보름날에는 봉은사

미륵전에서 차회를 여는 것도 정기적인 행사다. 94년에는 관정의식을 발표했고, 또 불교의 관혼상제의식을 재현하기도 했다.

1979년 최범술스님(경남 다솔사), 전각가 안광석선생, 천승복선생, 로비스트 박동선씨와 쌍용그룹 김석원회장의 모친 김미희보살 등이 차인회를 만들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그러나 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식감수에 고산 일운스님, 고종에 혜경스님 불단이 유희정 이화여대교수가 참여하여 그동안 끊어진 육법공양의식을 최초로 재현했다.



육법공양회는 자체 봉사활동도 갖는 등 불법총포의 최일선에 있다.

올해에는 전국장애인불자연합회(회장 나경선) 창립기념법에 참가하여 육법공양의식을 펼칠 계획

김원우 기자

절·염불·독경·참선·기도 (수련내)

◎ 참선기초수행법, 외선호법법, 행선염불, 금강경봉독법, 특별기도법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①숨이 차고 힘겨울 때 절하는 것은 마음이 크게 중요된 것으로 정신 집중 안되고 때와 실각 등의 신체가 무리가 오는 어리석은 수행이다. 호흡과 절을 절 동작에 정확히 대입하여 자연 단전 호흡되면 삼천배를 하더라도 숨이 차고 힘겨울 일도 절상대 이루고 강력한 기운의 집중과 방출로 일생 감기, 풍상 안질등도 당노, 치매, 중풍은 예방되고 치유된다. ②염주등과 수저등도 시계보면서 절하는 것은 바보같은 수행이다. 호흡과 동작에 숫자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백이러며 정신 집중이 좋아져 생각이 또 잊고 잊고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③참선과 절할때, 일어설때 우주의 맑은 기운이 몸에 깔리면 명백하면서 절하거나 일하면서 절하면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흔들리고 힘이들며 몸살나게 되니 비 일정한 자세에 단전에 양인 기운을 유통시켜야 생각이 나게 된다. ④요가, 선제초, 기공제초, 단전행동, 명상제초보다 동작과 호흡의 일치와 진리 무리없이 쉽게 절하며 장소 구애 없이 단념과 단념, 시간남비 없으며 지극한 신심이 증명되고, 단기간에 효과 발휘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며 만인류는 필히 실천해야 할 수행법이다. * 서있는 상태에서 숨을 내쉬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는 호흡법을 전혀 모르고 어리석은 스승이라 비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수행하라.

◎ 염불 취사 청진

운반은 지세가 계속 유지됨으로 돌림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피로하지 않으며 집중력 정진에 힘입어 자중으로 열불되고 자중으로 단전 호흡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가장 쉽고 언제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이다. * 염불을 통해 허를 완벽하게 이완시키면 중풍, 치매, 고혈압이 예방치유되며 스트레스는 즉각 해소된다.

◎ 신비의 도인 건강법

피로회복(20분), 소화불량(3분), 불면증(즉시), 화병(1달), 무중(3회), 변비(순간), 비만, 고혈압(100일) 특히 당뇨병은 합병증 상대에서도 쉽게 치유된다.

-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기본수행법 수련
● 매주 토요일 저녁9시~일요일 아침 8시 철야용맹정진
● 예약수련, 복합복합, 수련회비

아름다운 소리산 불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인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젊은 佛子여 내일을 열자!!!

- 믿음 기술 자금으로 2001년 주인이 되자 -

자연계는 섭리세계(攝理世界)의 궤도(軌道)로 혼돈의 끝이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인간생활은 자기부정(自己否定)의 극한상황 속에서 생존경쟁으로 빚어진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황량(荒涼)한 생명의 여백(餘白)을 믿음을 통한 인성회복(人性回復) 노력생활(勞作生活)을 통하여 기술습득과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36개월후 당당하게 내일의 주인공으로 출사(出師)코저 한다.

● 참고 사항 ●

1. 불자가정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호국영령의 자손 가운데 공업고(工業高) 수료와 병역의무를 필한다.
2. 36개월 공동생활 장소는 부산시 금정구 소재 1,350평 위에 4개동의 건물 준비
3. 원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수료, 고회를 맞아 평생의 수련을 결심코자 함.
4. 통신연락은 팩스(FAX): 02)925-1661로 가능하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팩스접수후 회신함.

1998년 5월

忠孝文化院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익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아간 및 통신생)
①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범고)다루는법,도량식, 첫승,상단예불,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등
②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다비식 등
③작법반: 요점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대계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8년 5월 18일 ~ 6월 19일
■ 개강일시 : 1998년 6월 19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1년)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사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도 극장영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